

노·사주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사업의 산재예방 효과

Impact of Subsidies for Labor and Management-directe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n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이윤정¹⁾, 정혜선²⁾, 조덕연³⁾, 이복임⁴⁾

¹가천대학교 간호대학, ²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³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⁴울산대학교 간호학과

목적: 본 연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률과 비용지원 사업의 기간을 고려하고 건강증진 비용지원 사업의 성과를 사업장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건강증진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후 동일 기간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비교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비교조사연구로 2011년도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사업을 실시한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자료는 이들 사업장의 산업재해 원자료를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산업재해발생 현황 자료로 재해발생일, 산재의 종류, 근로손실일수 등이 사용되었고 사업시작전 1년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부상, 업무상질병, 사망)과 사업종료 후 1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를 엑셀로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 대상사업장의 산업재해(부상, 업무상 질병, 사망)는 감소하였고(평균 0.35명에서 0.24명으로) 사업특성별로 산업재해지수를 비교한 결과 스트레스 관리를 실시한 사업장의 지수(평균 0.33명에서 0.15명)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실시한 사업장도 산업재해지수(평균 0.37명에서 0.16명)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산업재해율이 사업 전 0.49에서 사업후 0.35로, 업무상질병 만인율이 5.17에서 4.70로, 근로손실일수가 35,433에서 23,867로 모두 감소하였고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감소하였다(0.55에서 0.38). 뇌심혈관질환 관리($p < .01$), 근골격계질환 관리($p < .05$), 생활습관 개선($p < .05$)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근로손실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건강증진 활동의 효과를 직접적인 지표인 산업재해율로 살펴본 의미있는 연구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함을 확인하였고 근로자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업주 및 정부 투자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